

2차 대전 후 미국 가구 디자인의 경향과 맥락에 관한 분석 연구

이 영 화^{*1}

An Analytical Study on the Trends and Contexts of American Furniture Design in the post World War II period

Young-Wha Lee^{*1}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trend of postwar period American furniture design and analyzes the contexts of the trend.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categorized the types of the styles or "looks" of furniture which were dominant in postwar period America: the machine look; the handicraft look ; the biomorphic look.

The background and the context for each look were traced back and analyzed both diachronically and synchronically.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ovided two conclusions. First, postwar period American furniture design is in many ways indebted to the World War II, because the war itself and postwar economic revival produced high demands for furniture, which consequently produced a variety of looks of furniture. Second, the furniture design in this period is attributed to commercialism and consumer-oriented design policy formulated in the mid 1920's when American design established its own identity separating from European avant-gardism.

Keywords : postwar period America, furniture design, context, machine look, handicraft look, biomorphic look, commercialism

* 1 계원조형예술대학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관점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디자인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강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왔다. 전쟁 이전 유럽의 아방가르드인 기하학적 모더니즘에서 일찍이 벗어나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판매증진을 위한 디자인으로 전향하였던 미국의 상업적 모더니즘은 2차 대전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2차 대전 기간동안 억제되었던 욕구가 분출되어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은 새로운 양식과 다양한 색채를 채용함으로써 중요해지기를 갈망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¹⁷⁾

디자인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이러한 양식적 다양성은 특히 제품디자인이나 가구디자인 등 소규모의 디자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가구디자인의 경우 이러한 양상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양식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우선 예술이나 디자인에 있어 양식의 탄생과 소멸에는 그 원인과 맥락이 존재한다는 관점, 즉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디자인의 양식의 탄생과 소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맥락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전후 미국 가구 디자인의 다양한 양식의 맥락을 분석함에 있어서 각각의 양식에 대한 원인 및 맥락을 밝힘과 동시에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총체적 개념이 존재하였으리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파악하려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궁극적으로 한 시대의 양식의 형성은 그 내부적 요인들, 즉 디자인 양식 내부의 요소들 못지 않게 양식 외적(外的) 맥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우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인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약 15년간을 시대적 범위로 설정한다. 이 시기는 우선 정치, 경제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럽과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대(大) 전쟁 이후 전쟁의 직접적 타격을 입지 않은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획득하고 세계를 주도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196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태동으로 인한 국가적 다원주의가 도래하기 이전인 역시 미국의 주도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15년간의 미국 디자인이야말로 유럽의 전위 예술과 전위 디자인의 영향에서 벗어난 미국 디자인의 정체성이 타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가구디자인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에 비하여 제품이나 가구는 그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당대의 시대상황이나 당대 사용자의 요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가치”가 높은 가전제품에 비하여 가구는 거실에서 오브제로서의 역할로 인한 “전시가치” 또한 높게 인식되는 관계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분야로서 본 연구의 주제에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대상을 가구로 한정하였다. 또한 가구디자인 내에서도 외양적 측면, 즉 양식적 측면으로만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생산방식 등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우선 2장에서는,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설정한 15년간의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을 조사하여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서적과 기존의 논문을 통하여 전후(戰後) 미국 가구 디자인의 경향을 조사하고 분류한 후 4장에서는 각각의 경향·양식에 대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즉 2장에서 파악된 당대의 시대상황을 당대의 가구 양식들과 개별적으로 연관시킴으로서 디자인 외적인 요소들이 디자인 양식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5장의 결론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요인들과 양식의 영향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체

17)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p.177

적 상관관계와 맥락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2. 전후(戰後) 미국의 시대적 배경

2.1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

세계 제2차 대전은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나 전쟁 중 군의 파병으로 인하여 미국인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따라서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었다. 즉 군수물자의 생산과 공급으로 인한 전쟁 중의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라 전쟁 후 다른 국가들이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을 때 미국은 일찍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세계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전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국력이 강한 국가가 되었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 대내적으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비자들이 전쟁 중 억제되었던 욕구를 분출하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사들이게 되어 소비 시장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코카콜라나 IBM 등 소위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미국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終戰)후 파병된 젊은 군사들이 귀국하면서, 그리고 종전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안정으로 젊은이들이 전쟁 중 미루어 놓았던 결혼과 출산을 서두르게 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미국 정부는 단일가구를 위한 저가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주택공급은 미국 전역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특히 대도시의 주변, 즉 교외지역(suburb)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외 저가(低價) 주택공급의 대표적인 예가 1949년과 1950년에 걸쳐 이루어진 미 동부 지역의 레비타운(Levittown)이었다. 이는 레비트(Levitt) 일가에 의하여 개발되고 지어진 조립식 주택단지로서, 저가 정책은 주택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개발업자들에게는 이득을 주어 이 레비타운은 커다란 인기를 얻어 대단위로 개발되었다.¹⁸⁾ 또한 이러한 교외 주택 단지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형 쇼핑몰들이 지어지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의 대단위 주택단지, 대형 쇼핑몰, 그리고 이런 지점들을 이동하기 위한 자동차 등은 전후 미국사회 경제적 부흥의 상징이 되었으며 대다수 중산대중들의 소비문화가 형성되었다.¹⁹⁾

2.2 문화, 예술적 배경

종전(終戰)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안정은 소비심리를 자극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를 창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젊은이들이 새로이 결혼을 하고 교외에 정착하면서 새 가정에 채워 넣을 가구와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1929년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일찍이 판매에 관심을 기울인 미국의 디자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주의적 디자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1930년대는 경제공황으로 인한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판매위주의 정책이 미국 디자인에 공업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었는데, 이는 판매와 직결되는 것은 제품의 기능에만 적합한 기능주의가 아니라, 그 외양(style)이라는 것을 회사 경영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운송수단 디자인에 공기역학(aerodynamics)을 적용한 유선형(streamline)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가전제품 등에게까지 확장되어 디자인에 있어 스타일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회장인 슬론(Alfred Sloan)은 일찍이 이러한 스타일링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비

18) Rowe, Peter, *Modernity and Housing*, MIT Press, 1997, p.197

19)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의 공간, 시공사, 1999년, p.247

자 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스타일링에 엔지니어링 이상의 중요성을 부여하였다.²⁰⁾

이러한 상업주의적 디자인은 이제 미국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종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안정은 감성적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디자인이나 순수예술에서도 이제는 전쟁 이전의 “순수조형”에서 “내면표현”으로 전환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²¹⁾ 따라서 이제 디자이너들도 단순한 기능주의적 디자인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도록 디자인 외부에까지 그 모티브의 소스(source)의 풀(pool)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서 디자인은 순수예술에서 그 모티브를 차용하게 되었는데, 순수예술가들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들의 예술을 “상업적 필터(commercial filter)”를 통하여 대중들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화가나 예술가들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용품의 모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디자이너는 이제 단순한 기능을 따르는 엔지니어나 완성된 디자인에 마지막 터치만을 가하는 화장사(cosmetician)에서 벗어나 자신의 컨셉을 가지고 전체를 구상하는 일종의 예술가이며 조각가가 되었다.²²⁾

순수예술 외에도 미국 디자인의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해준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이었다. 스칸디나비아는 지역적으로 서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어 서유럽, 즉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아방가르드의 메마른 기하학적 디자인이 성행하였을 당시에도, 지역적 재료인 나무를 심분 활용한 가구와 건축이 주류를 이루었다. 핀란드의 대표적 건축가인 알토(Alvar Aalto)는 벽돌을 주로한 버내쿨러 건축과 나무를 이용한 독특한 곡선 의자로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디자인 언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북구의 언어가

전후에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도 이를 적극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렀다.

이와 같이 다양해진 디자인 언어를 일반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대중들이 그들의 가구와 가전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공해준 것은 전후(戰後) 미국의 미술관들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조형언어를 지닌 디자인, 즉 역사주의적 장식을 거부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지닌 디자인에 “Good Design”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면서 일련의 전시와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다.²³⁾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취향은 향상되었고 이는 다시 디자인에 영향을 주어 디자인 분야는 이러한 향상된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즉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3. 전후(戰後)미국 가구의 경향 조사

1950년 뉴욕의 근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에서 출간한 책자인 “무엇이 모던 디자인인가?(What Is Modern Design?)”의 한 부분에 삽입된 당대 의자의 모습을 보면 전후 미국 가구의 디자인이 그 외양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또한 디자이너이자 디자인 연구자인 넬슨(George Nelson)은 1949년 *Interiors*지(誌)의 기고문에서 당대의 디자인의 외양을 “기계적 외양(machine look)”, “수공예적 외양(handicraft look)”, 그리고 “생물체적 외양(biomorphic look)”으로 분류하였다.²⁴⁾

3.1 기계적 외양 (Machine Look)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미스 반 데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기능주의적 디자인, 즉 유럽의 아방가르드 디자인에 그 근원을 둔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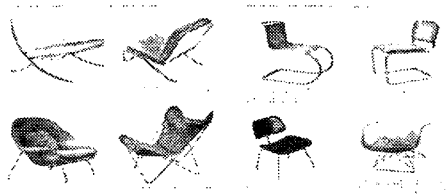
20) Doordan, Dennis P., *Design History: an Anthology*, MIT Press, Cambridge, Mass, 1995, p.127

21) 유근준, 현대회화의 초대, 서양미술전집 25, 한국일보사, 1974, p.20

22) Marcus, George H., *Design in the Fifties: When Everyone Went Modern*, Prestel, 1998, p.113

23) Woodham, Jonathan M., *Twentieth-Century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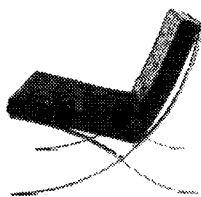
24) Nelson, George, "Modern Furniture...An Attempt to Explore Its Nature, Its Sources, and Its Probable Future," in *Interiors*, vol.108, July 1949, pp.108-111



(그림1) 1950년 뉴욕 근대미술관이 발생한 "What is Modern Design?" 의 한 페이지

식으로서 이러한 기계적 외양은 2차 대전 이에도 지속되었다. 이는 특히 소위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이라 불리는 유럽 아방가르드의 건축가인 르 코르부지에(Le Corbusier), 미스 반 데 로에,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등의 건물에서 그 특징을 차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들의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인 유리, 금속 등과 기계적인 외양을 차용하였다.

2차대전 전인 1929년 이미 "바르셀로나 의자(Barcelona Chair)"로 알려진 미스 반 데 로에의 기계적 외양의 의자(그림2)는 1950년대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었으며, 1952년 미국의 가구 디자이너인 켈리(Katavolos-Littell-Kelly)의 가족과 크롬 도금을 사용한 "T 의자"와 역시 이러한 기계적 외양을 지닌 의자 중 하나였다.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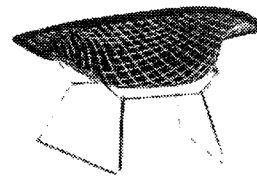
(그림2) 미스 반 데 로에, "Barcelona Chair", 1929



(그림3) Katavolos-Littell-Kelly작, "T Chair", 1952

이러한 기계적 외양은 1930년대의 기계역학을 적용시켰던 미국의 공업디자이너 드레이퍼스(Henry Dreyfuss)와 로우이(Raymond Loewy)의 영향을 받아 "매끈한(sleek)" 곡선과 "반짝이는

(shiny)" 재료를 조화시켰는데, 즉 형태 상으로는 곡선을 사용하면서도 기계적 느낌이 나는 금속 등을 그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곡선의 부드러움과 금속의 기계적 차가움을 조화시켰다.(그림4)



(그림4) 버토이아(Henry Bertoina)작, "Diamond Chair"

3.2 수공예적 외양 (Handicraft Look)

디자인 연구자인 마르쿠스(Marcus, 1998)는 1950년대 초반 수공예적 외양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는 특히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가정에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평범한 소비자들(average customers)"에게 어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수공예적 느낌은 단지 외양일 뿐이며 생산방식은 1950년대에 이미 자리를 잡은 기계생산방식을 따랐다고 전제하고 있다²⁵⁾.

특히 전후(戰後) 새로이 형성된 도시 외곽에 정착하는 가정들이 집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단풍나무를 이용한 수공예 느낌의 가구가 선호되었으며 금속이나 목재의 손잡이와 나무 다리를 지닌 가벼운 목재 사각 캐비닛이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였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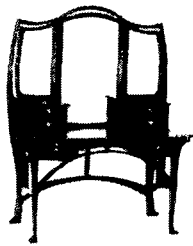
(그림5) 1951년도 제작된 Sears, Roebuck and Co.의 추/동(Fall/Winter)용 카탈로그

3.3 생물체적 외양 (Biomorphic Look)

전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유행했던

25) Marcus, op. cit., p.92

형태는 이 생물체적 외양이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전쟁 이전의 기하학적 디자인과 대비시켜, “유기적 디자인(Organic Design)” 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더 나아가 “유기적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이라고까지 칭하였다. 넬슨(Nelson, 1949)은 이러한 생물체적 형태를 가리켜 “무정형이며 살아있는 조직처럼 흐느적거리는 형태(amorphous and flowing like living tissue)”라 할 정도로 비정형적인 곡선이 주로 사용되었다.²⁶⁾ 역사적으로 곡선을 적극 이용했던 선례인 19세기말의 아르누보(Art Nouveau)와 비교해 볼 때 아르누보의 곡선이 식물에서 그 모티브를 차용한 가느다랗고 긴 곡선이라면 (그림6) 유기적 디자인의 곡선은 식물보다는 동물체, 더 나아가 인간의 형상에서 모티브를 차용한 볼륨감 있는 폐곡선이었다.(그림7)



(그림6) 세뤼리에 보비 (Serrurier-Bovy)작, 화장대, 1899



(그림7) 자콰슨 (Arne Jacobson)작, “Swan Chair”, 1958

이러한 곡선적 양식은 그러한 형태언어(formal language)를 형상화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준 다양한 신재료들, 즉 섬유강화수지(FRP), 라미네이티드 우드(laminated wood), 라텍스 폼(latex foam) 등의 여러 가지 재료로 시도되었는데, 유명 조각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은 그 본제품(original)을 모방한 복제품(copy)을 통하여 전후 미국 전역에 계층에 상관 없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림8)(그림9) 또한, 앞서 언급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의 사무실을 새로이 단장하는 과정에서 진보된 그들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구인 생물

체적 외양의 가구들로 사무실을 채워나가면서 이러한 곡선적 양식의 가구들은 진보적이고 세련된 가구의 대명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림8) 노구치(Isamu Noguchi)작, 테이블, 1944



(그림9) 노구치 테이블 모방품의 광고, 1955

4. 배경과 맥락의 분석

4.1 기계적 외양에 관한 맥락 분석

가구나 제품에 있어 기계적 외양은 전후보다는 오히려 전쟁 이전인 1920-30년대에 성행했으며 미국보다는 유럽에 그 뿌리를 둔 기능주의적 사고에 그 맥락을 둔다. 프랑스의 건축가인 르 코르부지에(Le Corbusier)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A house is a machine to live in.)”라 하면서, 그의 유명한 저서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에서 비행기나 선박의 예를 들어 건축디자인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계적 정교함과 기능주의적 사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⁷⁾ 그의 “최적의 자동차(Voiture Maximum)”는 당시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기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²⁸⁾(그림10) 그의 “대량생산용 주택 시스템”인 “도미노(Dom-Ino)”또한 건축디자인에 있어 기계적 대량 생산방식을 도입해보려는 그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²⁹⁾(그림11)

27) Le Corbusier, *Toward a New Architecture*, (translated from French),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6, pp.106-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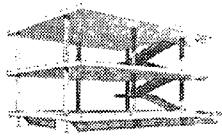
28)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Ltd., 1980, p.179

29) Boesigener, Willy, *Le Corbusier*, Editorial Gustavo Gili, S.A., Barcelona, 1972,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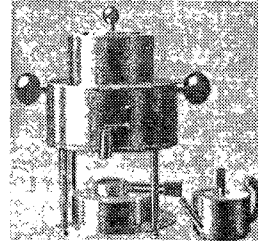
26) Nelson, Geroge, op. cit., pp.10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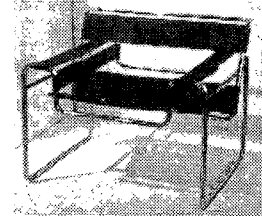
(그림10) 르 코르부지에, "최적의 차(Voiture Maximum)", 1928



(그림11) 르 코르부지에, "도미노 주택(Maison Dom-ino)"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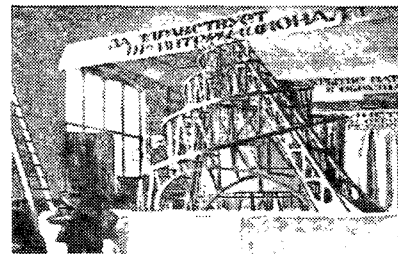
(그림12) 크나우(Joseph Knau) 작, '찾잔, 1924



(그림13) 브로이어(Marcel Breuer)작, "와실리 의자(Wassily Chair)", 1925

한편 독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바우하우스에서는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적 효용을 결합해서 자신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창조"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금형(mould) 혹은 원형(prototype)디자인에 주력하였는데, (그림12)와 같이 실제로는 수공예로 생산되면서도 기계적 모습(machine look)을 띠는 많은 제품이 생산되었다.³⁰⁾ 특히, 바우하우스의 1세대 학생이었던 브로이어(Marcel Breuer)의 "와실리 의자(Wassily Chair)"는 전후 미국 기계적 외양의 의자와 그 양식 면에서 상통하고 있다.(그림13) 러시아에서의 이러한 기계적 모습의 디자인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작가 중 한 사람인 타틀린(Vladimir Tatlin)에 의해 주로 시도되었는데, 1920년 제작된 그의 대표적 작품인 "제3인터네셔널 기념탑"은 유리와 철이라는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또한, 실제로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움직이게 하려는 그의 초기 컨셉에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붙여 놓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한다(Engineers Create New Form)"라는 문구를 통하여 당시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기계에의 심취를 보여주고 있다.³¹⁾(그림14)

이러한 기계 중심적 유럽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미국 전후 시대로 이어지는 배경은 무엇일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유럽 디자이너들의 미국 이주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일 나치의 탄압은 절정에 달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바우하우스의 많은 교수들이 미국



(그림14) 타틀린, 제3인터네셔널 기념물 모형, 1919-20

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바우하우스의 초대 교장인 그로피우스와 마지막 교장인 미스 반 데 로에를 비롯하여 앞의 (그림12)의 작품의 지도교수인 모홀리나기(Naszlo Mohoy-Nagy)등 많은 전위디자이너들의 미국행이 줄을 이었다. 특히, 그로피우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독일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이었고, 모홀리나기는 1937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카고에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교육이념을 이어나갈 디자인 학교인 "New Bauhaus"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1949년에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 합병되어 현재까지도 미국 산업디자인 교육의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미스 반 데 로에 또한 IIT에서 교편을 잡아 1945년 전후(前後)로 미국은 독일 바우하우스의 계승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전후(戰後) 미국의 가구에 있어 기계적 외양의 유행은 전쟁으로 인한 유럽 아방가르드, 특히 바우하우스 디자이너들의 이주를 가장 큰 배경으로 꼽아야 할 것인데, 바우하우스에서는 외양만 기계적이고 그 생산방식은 여전히 수공예를 바탕으로 했었던 데 반하여 전후 미국

30) 정시화, op. cit., p.308

31) Frampton, op. cit., p.170

기계적 외양의 가구는 그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기계화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발전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계적 디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수공예적 외양에 관한 맥락 분석

1950년대 대부분의 가구들은 이미 기계생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 외양상으로는 여전히 수공예적 느낌을 지니고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맥락으로 다음의 요인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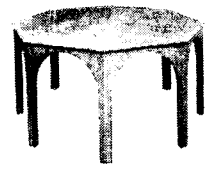
첫째, 전후 새로이 결혼하고 정착하는 가정들이 가구를 구입함에 있어서 많은 평범한 소비자들(average customers)의 생각과 취향이 여전히 수공예적 외양의 가구들에 대하여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디자이너들이 포착한 것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한동안, 즉 전쟁 이전 수십년간 유럽의 전위 디자인인 기하학적 모더니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으나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대거 가구를 구입함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 취향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배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전쟁 이전에는 단순한 국지적, 혹은 풍토적(vernacular)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이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 알려지면서, 나무를 주로 하는 가구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전후 미국에 수공예 가구의 부활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레비타운에 지어진 주택의 양식이 미국 전통의 콜러니얼(Colonial) 양식이었고,³²⁾ 이러한 주택양식과 부합되는 가구를 고르려는 의도를 지닌, 즉, 다소의 디자인 지식을 지닌 소비자들의 취향으로 인하여 낭만풍의 수공예가구가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된다.(그림15) 이러한 소위 “수준 있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가구를 선택함에 있어 대량생산되는 공장제품 같은 느낌의 것들을 피하려 하였고 이러한 선호도는 자연스럽게 수공예품 가구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그림16)



(그림15) 콜러니얼 양식으로 지어진 레비타운의 주택, 1949



(그림16) 랑스존 기블링스(Robsjohn-Gibblings)작, 식탁, 1955

4.3 생물체적 외양에 관한 맥락 분석

1) 1930년대의 유선형(streamline)

생물체적 외양의 양식적 근원으로서 우선 1930년대의 유선형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 운송수단 디자인에 있어 그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인 공기역학에 근원한 것으로 처음에는 운송기기에만 적용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매끈한 곡선은 곧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마침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판매부진에 고심하던 회사들은 이러한 유선형의 곡선을 그 기능과는 전혀 무관한 소형 가전제품에까지 적용시키기에 이르렀다.

전후 미국의 생물체적 외양의 디자인, 즉 곡선적 양식에 대한 근원으로 1930년대의 유선형을 언급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이다. 그 하나는 우선 곡선 그 자체인데, 물론 유선형의 디자인은 단어 그대로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움을 지닌 반면 생물체적 모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체의 볼륨감 있는 폐곡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유선형이 생물체적 외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기능에 관계없는 조형언어를 과감히 도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속도감과는 전혀 무관한 소형 가전제품에 유선형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1930년대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품디자인 분야의 “스타일링 우선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뒷받침 속에 전후 시대에서 기능과 무관한 곡선을 사용한 것은 아무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2) 순수예술의 영향

전후 미국의 사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순수예술과 디자인이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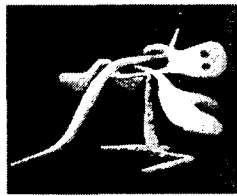
32) Colonial Style: 미 신대륙에 유럽인들이 이주할 당시에 지어진 고전적 주택양식. Whiffen, Marcus, *American Architecture Since 1780: a Guide to the Styles*, the MIT press, 1992, p.3

화된 시기였다. 디자인은 새로운 모티브를 찾기 위해 순수미술 쪽으로 관심을 확장해야 했고, 순수미술가들 역시 상업적 수익을 위하여 그들의 모티브를 기꺼이 디자인에 적용시켰다.

생물체적 외양의 순수미술에의 근원은 두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아방가르드 조각가들의 영향, 특히 무어(Henry Moore)나 칼더(Alexander Calder) 등의 영향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10년대에 시작하여 1920-30년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들 유럽의 아방가르드 조각의 곡선 미학은 전후 미국 가구에 새로운 조형언어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그림17) (그림18)



(그림17) 무어, “기대고 있는 상”, 19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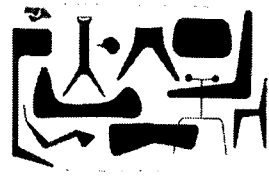


(그림18) 칼더, “낙지”, 1944

1924년 시인 브르통(Andre Breton)의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을 출발로 하여 시작되어 10여년간 문학, 연극, 회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초현실주의 회화의 양식적 특징인 곡선은 전후 미국 가구디자인에 자주 차용되었다. 넬슨은 이러한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1949년 그의 한 기고문의 삽화로서 (그림19)과 같은 몽타주를 작성하여 전후 미국의 생물체 모양의 가구의 조형언어가 초현실주의 회화, 특히 미로(Joan Miro)의 조형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³³⁾(그림20)

3) 감성으로의 회귀

2차 대전 이후 예술과 디자인의 주류에 나타난 뚜렷한 양상은 인간감성으로의 회귀 현상이었는데, 이는 종전(終戰)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전후 미국가구에 있어 생물체적 외양은 이러한 감성으로의 회귀에 그 맥락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그림19) 넬슨이 “Interiors”지에 기고한 글 “Modern Furniture”의 삽화



(그림20) 미로 (Joan Miro)작, painting, 1933

프로이트(Sigmund Freud)³⁴⁾ 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회화에 있어서 소위 “뜨거운 추상”이라 불리는 감성적 계열의 추상의 부상으로서 나타난다.

우선, 프로이트 심리학은 전후 생물체적 외양의 가구에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각각 빙산의 일각과 그 밑부분의 “숨겨진 빙산(hidden iceberg)”에 비유하며 인간의 무의식에 중요성을 부여했던 프로이트 심리학은 이러한 무의식을 찾아내는 데에 있어 꿈의 분석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 잠재의식에는 성(性)에 대한 본능이 잠재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생물체적 디자인의 직접적인 모티브가 되었는데, 임산부의 형상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21)의 코펠(Henning Koppel)의 와인주전자나 “자궁(Womb)”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리넨(Eero Saarinen)의 의자는 프로이트 심리학과 전후 미국가구의 생물체적 외양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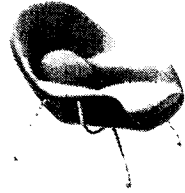
또한 전후 미술의 양상인 “내면표현”으로의 방향전환, 즉 감성으로의 회귀 현상 또한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생물체 외양의 가구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 감정 대신 엄격한 조형언어를 내세웠던 몬드리안(Piet Mondrian)으로 대표되는 “차가운 추상” 혹은 “기하학적 추상”(그림23)과 감성과 색채를 중시했던 칸딘스(Wassily Kandinsky)로 대표되는 “뜨거운 추상” 혹은 “서정적 추상”(그림24)의 대립에서 후자, 즉 “뜨거운 추상” 계열의 승리는 전후 미술이 감성으로 회귀하는 양상중 하나이며 곡선적 디자인을 뒷받침해줄 수 있었던 사상적 근거인 것이다

33) Marcus, op. cit.,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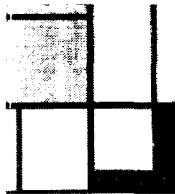
34) Sigmund Freud(1856-1939):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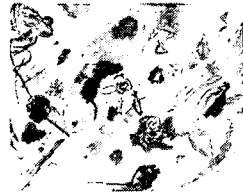
(그림21) 코켈 작,
와인주전자, 1948



(그림22) 사리넨 작,
"Womb Chair", 1946



(그림23) 몬드리안,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1928



(그림24) 칸딘스키,
"최초의 추상적 초상화",
1910



(그림25) 사리넨(Eero
Saarinen) 작, "Tulip
Chair", 1956



(그림26) 사리넨(Eero
Saarinen) 작, "Tulip
Chair", 1956

매끈한 일체형 곡선적 조형언어를 이룩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다. (그림26)

이러한 새로운 재료의 발명 외에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한 곡선 언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즉, 플라스틱 성형에 있어서 한번에 양쪽에서 재료를 몰딩하는 방법이 고안됨으로써 근대가구 디자이너들은 부분을 조립하는 제작방법에서 한번에 전체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³⁶⁾ 플라스틱을 이용한 조각적 (sculptural) 형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4) 새로운 재료의 개발

생물체적 외양, 즉 곡선적 디자인은 그러한 조형언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고전적 방식으로 나무를 조각하는 방법이나, 판재형식의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힘에 견딜 수 있는 곡선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고안된 새로운 라미네이트, 새로운 밴딩 기술, 라미네이트된 나무의 조합 등의 기술은 새로운 조형언어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 나무 라미네이션은 2차 대전 동안에 비행기 구조의 연구, 특히 프로펠라의 연구와 동물성 아교보다 우수한 인공수지의 개발에 대한 빠른 투자로 발전했다.³⁵⁾ (그림25)

2차 대전 중 발명된 또다른 재료인 섬유 강화수지 또한 곡선적 디자인, 특히 볼륨감 있는 생물체적 외양의 가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는 그 재료적 특성에 의한 자체적 보강으로 인하여 별다른 형태적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5. 결 론

세계 제 2차대전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약 15년간 미국 가구 디자인의 경향과 맥락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1945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 가구디자인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차 대전 그 자체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유능한 디자이너들, 특히 바우하우스의 교수진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유럽 아방가르드의 기계적 외양을 미국에서 맥을 잇게 해 주었다. 재료와 기술의 측면에 있어서도, 군수물자의 개발을 위한 FRP나 인공수지의 개발 등으로 생물체적 외양의 가구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이득과 특히 종전 후의 젊은이들의 대거 정착은 가구의 수요를 급증시켰

35) 피터 도머 저, 강현주 외 1인 역, Design since 1945: 1945년 이후의 디자인, 시각과 언어, 1995, p.145

36) Ibid.

고 이에 따라 가구디자인은 다양한 양식과 외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둘째, 이 시기의 가구 디자인은, 1930년대부터 판매와 이윤을 디자인과 결부시킨 미국의 상업주의적 디자인의 발전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유럽의 전통적 아방가르드인 기하학적 모더니즘을 과감히 포기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다양한 양식의 가구를 대량생산 시스템에 맞도록 변형시켜 생산해낸 것은 미국의 상업주의, 소비주의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전후 미국가구의 양식적 맥락과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식적으로는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의 경제적 부흥과 감정적 환기라는 상황과, 통시적으로는 미국 전통의 상업주의 및 소비자중심의 디자인 방식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양식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 Nelson, George, "Modern Furniture...An Attempt to Explore Its Nature, Its Sources, and Its Probable Future," in *Interiors*, vol.108, July 1949, pp.108-111
11. Rowe, Peter, *Modernity and Housing*, MIT Press, 1997
12. Whiffen, Marcus, *American Architecture Since 1780: a Guide to the Styles*, the MIT press, 1992
13. Woodham, Jonathan M., *Twentieth-Century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참 고 문 헌

1. 유근준, 현대회화의 초대, 서양미술전집 25, 한국일보사, 1974
2.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년
3.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4. 피터 도머 저, 강현주 외 1인 역, Design since 1945: 1945년 이후의 디자인, 시각과 언어, 1995
5. Boesinger, Willy, *Le Corbusier*, Editorial Gustavo Gili, S.A., Barcelona, 1972
6. Doordan, Dennis P., *Design History: an Anthology*, MIT Press, Cambridge, Mass, 1995
7.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Ltd., 1980
8. Le Corbusier, *Toward a New Architecture*, (translated from French Original, *Vers Une Architecture*),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6
9. Marcus, George H., *Design in the Fifties: When Everyone Went Modern*, Prestel, 1998